

전북대 정용준 교수, 방송학회 저술 부문 학술상 수상

올해 펴낸 '미디어 공론장과 BBS 100년의 신뢰' 공영방송 이념과 제도 원형을 BBC 역사 통해 분석

전북대학교 정용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사)한국방송학회가 주는 제17회 방송학회 학술상 저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교수는 저서 올해 펴낸 '미디어 공론장과 BBS 100년의 신뢰'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11월 10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책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설로 통용되는 '20세기 가장 훌륭한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공영방송의 이념과 제도의 원형을 BBC의 역사를 통해 분석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BBC는 국가의 통제와 상업적 선정주의로부터 벗어나 시청자들을 계몽했다. 그러나 BBC가 형성되고 진화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철저히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이상화하거나 비판일변도로 그치기 쉽다. 이러한 피상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공영방송 연구가 지나치게 BBC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역사보다는 정책 동향 위주이고, 찬양 일변도의 경향이 있

다. 우리에게 '방송은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은 곧 BBC'라는 서부유럽적, 영국적인 방향성을 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공영방송은 다원적인 개혁 지향성을 상실했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BBC를 이상화하여 추종하기 보다는, 한국적 상황에 부응하는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에서는 영국 BBC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BBC적 방향성'의 한계를 짚어보고 공영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준 교수는 "앞으로도 BBC같은 자유주의 공영방송뿐 만 아니라 독일과 스웨덴의 시민주의 공영방송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의 후견주의 공영방송의 역사 연구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존 리스, 아사 브리그스, 레이먼드 윌리엄스, 니콜라스 간헐과 같은 미디어 역사 선구자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적극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용준 전북대 교수

서부지방산림청, 제1회 친환경 사방시설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완)이 산림청에서 실시한 제1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존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시설의 목적뿐만 아니라 산림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접목한 사방시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서부청의 최우수상 수상은 앞으로의 친환경 사방사업의 모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서부청의 최우수상 대상지는 지난 2015년도 전국에 시설된 사방시설로 친환경 사방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자연재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변의 조화를 이루고 계류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주변경관과 자연생태를 고려한 다양한 공법이 심사에 적용되었다.

또한 주변의 편백 숲과 연계한 숲 체험·문화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및 일거리 창출 등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위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서부청 관계자는 "산림청은 사방시설이 단순 기능을 넘어선 친환경 사방이 되도록 해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생태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향토음식부분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에서 인정받아

제13회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기간 중에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대회도 28일까지 진행됐다.

요리경연대회는 향토음식부분, 참작음식부분(일반, 학생, 다문화), 디저트부분 3개 부분에서 다양한 팀이 출전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13개팀이 출전한 향토음식부문에 정읍시는 미리네 청국장(조막래, 김정수 / 중앙로 44)이 대표하여 경연에 참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했다.

향토음식부분은 전북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연이 이루어 졌다. 향토성을 잘 살리고 참작 및 실용성 있는 음식을 주제로 라이브 경연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맛과 정성으로 내로라하는 영업주들이 대회에 참여했다. 정읍시에서는 소박하고 친숙한 메뉴(청국장찌개)로 심사위원 및 현장 일반시식단의 윗등한 인기를 얻었다.

정읍시보건소장(문상용 소장)은 "평소 우리시민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읍의 맛을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인 참가자의 수상을 축하하고, 오늘을 수상을 통해서 정읍의 맛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와 인월면,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소장 조남도)와 인월면사무소(면장 진명현) 직원들은 지난 29일 사과 수확기를 맞아 인월면 지산마을을 찾아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 돕기는 인월면과 상수도사업소 간 화합행사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소 서투른 솜씨지만 초원농장 농기주의 작업요령 시범에 따라 '일 농민'의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수확할 수 있다는 기쁨과 보람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지일 받은 초원농장은 "지금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영농철에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 직원들이 작기에 사과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월면과 상수도 사업소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추진해 농민과 함께하는 행정관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새내기 바리스타 커피시음회 열려

임실군에서는 새내기 바리스타들의 무료 커피시음회를 30일 임실군청 로비에서 가졌다.



이날 커피시음회는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커피지도사 자격증반 수강생들이 15주간(30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기념으로 마련됐다.

이번 무료 시음회는 군민들의 왕래가 잦은 군청 로비에서 그동안 쌓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써 아메리카노, 아이스라떼, 콜드브루 등을 직접 제조해 향기로운 커피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커피지도사(홀카페마스터 포함)자격증 교육은 커피향과 분류법, 카페메뉴 제조법 등 이론, 실습을 병행하여 18명이 인증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김치환 과장은 "커피지도사 과정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창업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 임실치즈자원을 활용해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장수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 대한민국의방자치박람회 견학

계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30일 민자치운영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해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견학했다.



이날 박람회 견학에는 주민자치위원과 민사무소 직원 등 30명이 참여했으며, 타 시·군 우수사례 전시관과 정부정책토론 홍보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관, 마을공동체 토론회, 마을사진전 등을 관람했다.

한규범 위원장은 "박람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주민자치위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해 단결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계북면 미래도약을 위해 화합과 소통으로 주민자치 운영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8년 11월 29일 (토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969/9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674	남원지사 65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정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64
영지지사 010-8845-9855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52-3896	정읍지사 538-3787
	교안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9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